

스마트워치 대중화, 배터리 용량이 걸림돌

스마트폰 10% 수준 불과 시계줄 이용·핀 전지 등 추진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된 애플워치의 배터리 성능에 대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전형적인 사용 방식을 가정하면 18시간 간다”고 밝혔다. 팀 쿡 CEO는 애플워치에 탑재된 배터리의 정확한 용량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배터리 용량 및 수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애플은 애플워치 배터리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애플워치 배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 시 18시간가량 지속되는데 여기에는 90번의 시간 확인, 90번의 알림, 45분간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블루투스를 이용한 30분간의 음악 감상 등이 포함된다.

최대 통화시간은 3시간이고 음악감상만으로는 6시간 반을 이용할 수 있다. 단순히 시계로만 활용할 경우 48시간 지속된다고 애플 측은 밝혔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지난해 9월 애플워치를 처음 공개한 뒤 실제 제품을 발표하기까지 배터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통화나 문자메시지 송수신, 일정관리 등의 전통적인 스마트폰의 기능과 더불어 소비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심장박동 측정 등 헬스케어 기기로도 이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과 시간은 물론



애플워치



삼성 갤럭시기어2



LG워치 어베인

이용자가 잠을 잘 때도 스마트워치가 켜져 있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배터리 성능으로는 제대로 된 기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IT 전문매체인 테크크런치는 “애플워치는 아름답고 유용하지만 짧은 배터리 수명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워치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제조업체들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스마트워치도 손목에 차는 시계인 만큼 일정 크기 이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배터리 용량도 제한된다.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워치 제품 대부분은 300~400mAh(밀리암페어시)의 배터리가 적용됐다. 배터리의 용량을 표시하는 mAh는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류량을 뜻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배터리 용량이 큰 만큼 스마트워치나 스마트워치 사용 시간도 길어진다.

최신 스마트폰에는 3000mAh 전후의 배

터리가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마트워치 배터리는 스마트폰의 10분의 1 용량에 불과한 셈이다.

시장 1위업체인 삼성전자의 첫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에는 315mAh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지난해 4월 공개된 기어2와 기어2neo에는 300mAh의 배터리가 사용됐다. 가장 최신제품인 기어S의 배터리 용량도 300mAh에 그쳤다.

LG전자의 첫 스마트워치인 G워치는 400mAh, G워치R과 LG워치 어베인에는 410mAh의 배터리가 쓰인다. 통화 기능과 함께 우려한 디자인으로 최근 MWC에서 화제를 모았던 LG워치 어베인 LTE는 배터리 용량이 710mAh로 그나마 다른 제품에 비해 대용량으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스마트워치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사용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적화와 함께 배터리 용

량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플렉서블 배터리 등을 이용해 스마트워치 본체 외에 시계줄 등을 배터리로 채우는 방법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삼성SDI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플렉서블 배터리가 대표적이다. 이 배터리는 단순히 커브드(curved) 형태를 뛰어넘어 ‘사용자가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을(bendable)’뿐 아니라 ‘돌돌 말 수 있는(rollable)’ 단계까지 적용 가능하다.

또 다른 차세대 배터리 중 하나로 캡슐 알약 크기의 초소형 핀(pin) 전지가 있다. 삼성 SDI의 핀 전지는 직경 3.6mm, 길이 20mm, 용량 10mAh로 기존 노트북용 원통형 전지에 비해 부피를 80분의 1로 줄였다.

이러한 핀 전지는 스타일러스 펜 등 초소형 사이즈의 배터리가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웨어러블 기기에 에너지원으로 장착될 수 있다. /연합뉴스

성미 급한 한국인들

스마트폰 분실시 70%가 한달내 구입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스마트폰은 가격이 보통 50만~100만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이지만 잃어버렸을 때 쉽게 단념하고 새 폰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핸드폰찾기콜센터’가 18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일주일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대답이 56.1%(1049명)로 절반을 넘는다. 한 달 이상 인내할 수 있다는 답이 16.1%(301명)로 뒤를 이었지만 그 비중이 크지는 않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탑재된 휴대전화라면 구글의 위치추적서비스를 고려해볼 만하다. 안드로이드 OS에는 위치추적 기능이 내장돼 있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필요가 없다. 핸드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or.kr)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센터는 분실자와 습득자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전국 우체국·경찰서·유실물센터와 연동돼 있다.

단 하루도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운 현대인의 풍속도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휴대전화 분실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각종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새 폰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분실 폰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발신을 정지시켜야 한다. 신고를 빨리 할수록 금전적 피해도 최소화된다.

안드로이드 OS에는 위치추적 기능이 내장돼 있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필요가 없다. 핸드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or.kr)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센터는 분실자와 습득자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전국 우체국·경찰서·유실물센터와 연동돼 있다. /임동률기자 exian@

한국 인터넷속도 세계1위

전세계 평균보다 5.6배 빨라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전세계 평균치보다 5.6배 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2014년 글로벌 온라인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통계 전문 리서치기업인 스타티스타는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갖고 있는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25.3Mbps로, 전세계 평균치인 4.5Mbps보다 5.6배 가량 빨랐다.

Mbps는 1초당 100만 비트를 보낼 수 있는 전송속도다. 1장당 한글 700자를 쓸 수 있는 A4용지 90장을 1초에 보낼 수 있다.

홍콩의 인터넷속도가 한국 다음으로 빨랐고, 일본,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체코, 싱가포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지난해 7월 현재 한국 내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인구는 4531만4248명으로 세계 12위에 올랐다. 한국 인구가 50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90.6%가 인터넷을 하고 있는 셈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올레tv 가입자 600만명 돌파

KT는 최근 IPTV 서비스 ‘올레tv’가 단일 유료방송 서비스 중 가장 먼저 가입자 수 600만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를 기념해 다음달 17일까지 기가 인터넷과 올레 기가 UHD tv를 동시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신 UHD TV(LG전자, 49인치)를 정상이보다 6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 <KT 제공>

KT는 최근 IPTV 서비스 ‘올레tv’가 단일 유료방송 서비스 중 가장 먼저 가입자 수 600만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를 기념해 다음달 17일까지 기가 인터넷과 올레 기가 UHD tv를 동시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신 UHD TV(LG전자, 49인치)를 정상이보다 6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기회를 제공한다. <KT 제공>

금주의 추천앱

날씨가 풀리면서 봄나들이를 준비하는 이들이 늘었다. 비교적 따뜻한 날씨 덕에 차림새는 가벼워지고 스마트 앱으로 떠나는 소풍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봄철 활용하기 좋은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한다.

Enlight/제작 : lightricks/아이폰

Enlight는 기존 앱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사진 앱이다. 색조와 색상 등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사진을 유화처럼 변환시켜주는 기능이나 혼잡필터, 데칼기능 등을 통해 봄나들이 사진을 아름답게 변환시켜 준다.



위시빈/제작 : Tourscrap Inc./아이폰, 안드로이드

위시빈은 코스별로 여행지를 소개하는 독특한 여행 앱이다. 구글 지도를 통해 여행지의 위치와 동선을 체크하고, 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일정은 다운로드해서 오프라인 상태일 때도 볼 수 있다. 봄철 테마 코스로 앱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김기사/제작 : locNall/안드로이드, 아이폰

김기사는 사용자의 실시간 운전데이터를 바탕으로 길안내를 하는 네비게이션 앱이다. 차가 막히기 쉬운 봄나들이에 빠른 길안내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직접 방문한 봄철 추천 장소도 제공하고 있어 유용하다.



DESIGN ZOOOS 제작: 디자인주스
ZOOOS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